

익산성모병원

전북 익산시 영등동 268-9
대표전화: 063- 841-0714



익산성모병원은 1972년 6월 가톨릭 전주교구의 요청으로 한센환우를 돌보는 성모의원이 설립되어 예수수도회수녀들과 의료진이 30년간 한센씨 병을 앓는 이들을 입원과 외래를 통해 치료해 주고 각 정착 마을과 보건진료소, 산간벽지를 찾아 이동 진료 하며 환자들을 돌보아주었습니다.

2003년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모의원을 증축하여 노인요양병원(104병상)으로 거듭나면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말기 암환자 돌봄을 계기로 호스피스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익산성모병원은 (사)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원병원으로서 가톨릭병원이념에 따라 치유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수도회 창립자 메리워드의 정신에 따라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상생과 소통의 변화를 일으키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2004년 8월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의 남원 의료원 호스피스 주관으로 전주 인보 성체회 교육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단기교육을 본원 사회사업팀과 간호 팀 수녀 2인이 교육을 받고 그 이듬해

2005년 5월 익산에서 처음으로 익산성모병원과 (사)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 주관으로 지역사회에 일반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단기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청, 익산보건소 직원들과 그리고 익산시내 본당(11개 본당) 신자 109명이 본 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마치고 호스피스 봉사 신청을 받아 선발된 회원들이 본격적인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사회에 두 차례에 걸쳐 호스피스 교육을 열어 모두 22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병원 내 간호사, 간병사교육을 통해 호스피스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과 돌봄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우리병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병원으로 2012년 현재 22명의 회원들이 (사)가톨릭호스피스협회 개인회원으로 등록되었고 그중 4명이 올해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번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주년 행사에 1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성모병원은 2010년도에 23명이 암으로 임종을 맞이하셨고 비 암성 질환으로 28명이 임종을 맞으셨으며 그 이후 2012년 11월말 현재 20명의 말기 암환자와 26명의 비 암성 환자가 임종하셔서 호스피스 돌봄은 우리병원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형태는 산재형으로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 팀(의사, 간호사, 원목자, 자원봉사자, 사회사업가, 영양사)을 중심으로 코디네이터 (호스피스



전담수녀)와 함께 환자의 병실을 직접 방문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지지해주고 임종을 도우며 사별가족의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돌봄으로 마음의 안정을 주고 남아 있는 날들이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종 전에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임종 단계에 이르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종실로 옮겨 영적지지를 헤드릴 수 있는 훈련된 봉사자들이 요일별로 조를 짜서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돌봄 후원은 특별히 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호스피스 바자회나 친환경 살리기 일환으로 쌀뜨물을 이용한 EM 발효액을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모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환자들의 입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와 가족 그리고 봉사자간에는 언제나 송고한 긴장감이 항상 있고 이런 불편심안에서 함께 동행해주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에서의 표현처럼 창조된 인간이 마지막 지상에서의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느님과의 손길과 맞닿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가톨릭호스피스 후원회 가입 안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은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이며,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호스피스는 환우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우면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 후원금입금통장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724073 · 국민은행 994437-01-003288 · 농협 301-0067-5700-11
· 신한은행 100-026-725929

■ 예금주 :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 ■ 문의전화 : 02)2258-7039

여러분들의 따뜻한 작은사랑이 어떤이들에게는 희망과 평화입니다.
입금 후 협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